

文정부, 경제단체서 첫 신년회... 새해 '경제 올인' 포석?

대선 때 중소기업 천국 공약한 文, 다시 경제를 말하다

중기중앙회에서 이례적으로 열려 구조적 한계 극복 위한 정책 필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4.10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 2019.1.2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대선 후보 시절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방명록에 적은 글이다.

정부가 매년 초마다 주관하는 신년회를 경제단체에서 연 것은 역대 처음이다. 게다가 5대 경제단체의 대표격인 대한상공회의소나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닌 중소기업 단체에서 정부의 신년회가 개최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전경련은 4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 등이 포함된 이날 신년회에 아예 초청장조차 받지 못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자체적으로 여는 경제인 신년인사회를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별도로 예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이날 정부가 중기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연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 후보 시절 같은 장소를 찾아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정부가 본격 출범한 후 공약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약속은 지켰지만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망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두 번째 신년회가 중기중앙회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에서 (정부 신년회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달라져보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5층에 마련된 회장실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약 5분간 환담도 했다. 이 자리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회가 경제단체에서 처음 열린 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방명록에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쓴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큼 경제계 테이블에는 김수현 실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성택 회장은 문 대통령 내외 등이 있는 헤드테이블 멤버에 포함됐다.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에선 박순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남학현 아이센스 사장, 김준홍 미래컴퍼니 대표, 김정하 티라유택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범진규 드림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 인사말을 전하면서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중기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린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며

장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날 신년회에 경제인을 특히 많이 모셨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상화된 저성장장과 선진경제 추격 모델의 한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기초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가보지 못한 길 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면서 보다 많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통령도 힘 실어준 中 올해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개정안 통과 경쟁력 제고 위한 '혁신' 중요성 강조

정부가 주최하는 신년회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준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둘러싼 이슈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문제다.

우선 지난해 시간당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로 넘어오면서 지난 1일부터 전년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 금액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놓고 아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논평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사용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당일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마지막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현장을 찾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도 큰 과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신년회에서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면



文 대통령,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공식일정 시작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등 장관급 인사와 황서중 인사혁신처장, 김의숙 법제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인사도 동행했다. /뉴시스

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전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도)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스마트산단 및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혁신성장 예산 본격 투입 등을 진행하거나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혁신성장'을 바라보

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혁신성장'이 자칫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세밀한 정책을 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도 갯수만 늘리기보다는 제대로 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이 정체성 확립 ▲해의 중소기업의 유턴 활성화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 강화 ▲대기업과의 격차 줄이기 등을 '2019년 중소기업 관련 정책 이슈'로 꼽았다. /김승호 기자

새해부터 곤두박질 친 증시... '1월 효과' 찬물

첫 거래일 불확실성 우려에 급락 악재 산더미에 전문가도 보수적

2019년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증시는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중국의 경제지표에 대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다 ▲미국 섀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 ▲국내외 실적 둔화 ▲미중 무역협상 및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가 번진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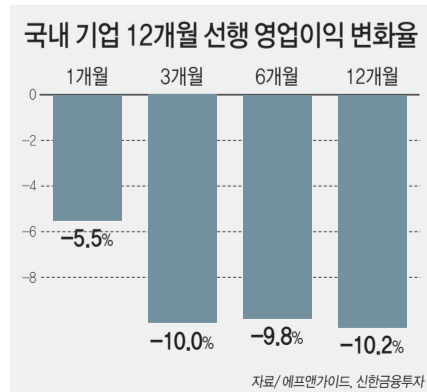
이번 급락세는 연초인 1월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1월 효과' (중소형주가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현상)를 기대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04포인트(-1.52%) 내린 2010.00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수급이 무너져 내렸다. 여기에 중국 상하이종합지

수, 항셱지수와 항셱H 지수 역시 일제히 곤두박질 쳤다. 닷케이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에는 악재가 산더미다. 밖으로는 ▲미국 섀다운 장기화 ▲국내외 실적 둔화 ▲미중 무역협상 및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안으로는 기업들의 투자가 줄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보수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한국 증시가 위

기국면에서 안정국면으로 가는 전환국면에 있다고 평가하고 1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2000~2150으로 제시했다.

정현중 연구원은 "국내증시가 작년 3분기 위기국면을 거쳐 작년 11월부터 다시 전환국면으로 돌아섰다"며 "경기 둔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위험자산인 주식의 기대 수익은 높지 않았으나 선진국·신흥국 주식과 비교하면 국내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이달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밴드)를 1950~2160으로 제시했다.

/김민호 기자 kmh@